

‘화장품·중고차’ 中企 수출 주도 물류지원 등 위기 대응력 높여야

/유토이미지

중소기업 수출 현주소는

2024년 중소기업 수출 효자 품목은 ‘화장품’과 ‘중고자동차’였다.

‘K-뷰티’를 대표하는 화장품은 한류의 영향으로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수출 1위 품목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특히 화장품은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 단일 품목 가운데 최초로 ‘60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화장품 수출은 2023년 53억2000만 달러, 2024년 68억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2위에 올랐던 2022년에도 화장품 수출 규모는 46억 달러에 달했다.

화장품 수출액은 2024년과 2023년 각각 역대 1·2위를 나란히 기록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만 놓고 보면 2023년 20.2%, 2024년 27.7% 씩 늘어 중소기업 수출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화장품 수출, 2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 차별화 제품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원화약세 악영향... 저가 경쟁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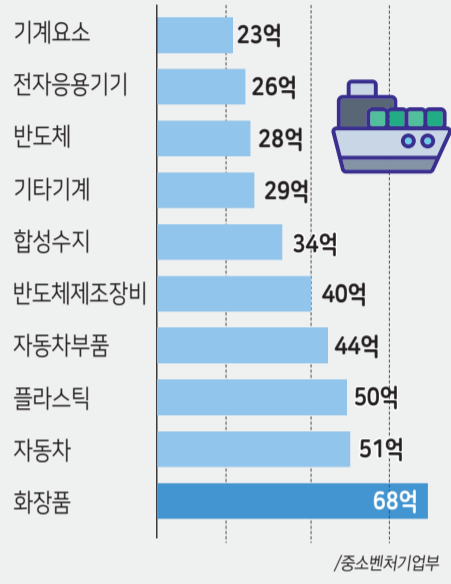
지난해의 경우 중국으로의 화장품 수출이 10억7000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4.7% 감소하며 주춤했지만 미국이 전년대보다 무려 46.5% 증가한 13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일본(7억5000만 달러)과 베트남(4억5000만 달러), 홍콩(4억 달러)도 두자릿수 이상 수출이 늘어 연간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이 팔렸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액 가운데 44.9%를 차지하는 기초화장품은 지난해 미국, 홍콩, 아랍에미리트(UAE) 등으로 수출이 늘었다. 메이크업 제품은 미국, 폴란드 등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년에 비해 45.5%나 늘어난 립스틱 제품은 미국, 일본 등에서 많이 팔렸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포함한 화장품 총 수출액은 지난해 102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 돌파라는 신기록도 세웠다. 한화로는 약 15조원 규모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전 세계적으로 K-컬처 소비가 활발해지면서 미국, 일본, 동남아를 중심으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중견·중소기업들이 차별

2024년 중소기업 수출 품목 비교



/중소벤처기업부

화된 제품을 내놓고 마케팅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면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의 경우 화장품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6.4%로 전년의 62.6%에 비해 3.8%포인트(p) 늘었다. 화장품 수출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같은 여세를 몰아 올해 화장품 총 수출액은 전년대보다 11.9% 증가한 114억 달러로 전망했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중국 외 지역에서 중소기업의 화장품 수출이 활성화되면서 수출국이 다변화됐다. 아울러 미국, 일본 등에서도 시장 추가 확대가 기대된다”면서 “하지만 원화 약세로 인한 화장품 생산단가 상승과 중국산 저가 화장품이 해외시장을 추가 공략하면서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안타증권 이승은 연구원은 “올해에도 K-뷰티는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국내 인디 브랜드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존 주력시장이었던 중국은 자국 브랜드의 성장으로 한국 화장품 선호도가 하락하는 반면 미국에서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특히 미국에선 럭셔리 브랜드보다 인디 브랜드, 가성비비를 중시하는 K-뷰티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수출의 또다른 효자 품목인 중고자동차는 2022년까지만해도 ‘중소기업 수출 10대 품목’ 중 7위(31억 달러)에 머물렀었다.

그러다 2023년(49억 달러)과 2024년(51억 달러) 모두 화장품에 이어 2위 자리를 차지했다.

중고차는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액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웠다.

키르기스스탄(15억4000만 달러), 카자흐스탄(3억9000만 달러), UAE(2억5000만 달러) 등으로 수출이 크게 늘면서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으로의 중고차 수출은 2023년에 비해 55.8%나 증가하기도 했다.

반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리비아(2억2000만 달러), 이집트(2억 달러) 등 중동 지역에선 20% 줄었다. 러시아로 중고차 수출도 지난해 5억9000만 달러로 전년대보다 20.8% 빠졌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중고차 수출 시장 주요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당시 23만대 수준에 그쳤던 중고차 수출은 2018년 36만대, 2020년 39만대, 2022년 40만대 등으로 점점 증가세다. 2023년의 경우 1월부터 8월까지 수출 물량이 이미 42만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고차 수출액 역대 최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 심화 “클러스터 통해 선진화 도모해야”

수출대수(2022년 기준)로는 리비아(6만1841대)에 가장 팔렸다. 리비아에만 전체 중고차 수출물량의 15.3%가 집중됐다. 이외에 요르단(4만2273대), 튀르키예(4만514대), 이집트(3만8516대), 키르기스스탄(2만3273대), 칠레(1만7251대), 캄보디아(1만524대), 몽골(8952대), 예멘(6705대), 가나(6196대) 등의 순으로 많았다.

수출금액(2022년 기준)으로는 러시아가 전체 수출금액(29억5000만 달러)의 19.3%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요르단(18.3%), 카자흐스탄(9.7%), 키르기스스탄(8.1%), 이집트(5.3%), 리비아(4.5%), 칠레(2.9%), UAE(2.7%), 도미니카공화국(2.2%), 캄보디아(1.3%) 등의 순이었다.

수출대수 기준과 수출금액 기준 순위가 다른 것은 수출 차종에 따라 수출 차량의 대당 단가가 차이 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인한 수출 금지로 신차급 차량의 우회

수출이 증가해 수출대수에 비해 수출 금액이 상대적으로 컸다.

산업연구원 김천곤 선임연구원은 “중고차 수출 관련 행정·금융·정비시설·물류서비스 등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중고차 수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시장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는 ‘중고차 수출 복합전문단지(클러스터)’를 조성해야한다”면서 “아울러 중고차 수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중고차 매집, 보관, 차량 전시, 수리·점검 및 수출 물류 프로세스(통관, 지자체 행정업무 포함) 등 통합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중고차 수출 통합업무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1면 ‘중소 수출 가시밭길...’서 계속

“첨단·고부가 분야 등 중소 브랜드 전략 필요”

TF는 이달 중 수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애로를 듣고 대책 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기찬 교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원가 기반의 제품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중기부는 ‘디자인+혁신기술+사용자경험’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 브랜드 수출에 정책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면서 “기존의 수출 방식은 거래단절율이 50% 이상이지만 브랜드 수출은 제품 충성도가 높다. 재거래 수출 비중을 70% 이상까지 높일 수 있도록 중소기업 브랜드 전략을 신속하게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은 이날 내놓은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 중 하나로 ‘세계 무역 분절화 지속’을 꼽았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자국 보호무역 기조를 펴면서 무역 분절화가 계속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통상정책이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 중국내 경기 둔화로 중국에 대한 우리의 수출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기연구원 정윤정 부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소기업은 첨단기술 및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에 주력해야한다”면서 “정부는 국가별 수출경향도를 분석해 전략 품목을 지정하고,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6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